

개혁신앙 부록 목록

- 3호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비교표 / 박영선 3면
- 4호 개혁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 김명도 20면
- 5호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이해 / 손봉호 16면
- 6호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이해 / 신복윤 10면
- 7호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 / 김명도 24면
- 8호 복음주의, 근본주의, 개혁주의 어떻게 다른가? / 신복윤 24면
- 9호 우리는 왜 WCC를 반대하는가? / 문병호 36면
- 10호 Oswald Chambers의 신학 / 김명도 20면
- 11호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 김명도 20면
- 12호 칼빈의 예정의 논리 / 고광필 28면
- 13호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 박 신 16면
- 14호 평신도 필독 성경과 신앙서적 / 김명도 26면
- 15호 뉴 에이지 운동은 무엇인가? / 김명도 26면
- 16호 개혁과 교회론 / 서철원 26면
- 17호 죽음, 부활, 심판 / 김명도 외 36면
- 18호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 / 이승구 외 28면
- 19호 칼 바르트의 신학과 비평 / 한중희 44면
- 20호 단일론이란 무엇인가? / 김명도 36면
- 21호 칼빈의 5대 교리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 / 홍석승 48면
- 22호 레노바레 / 조진모 40면
- 23호 종교다원주의 발생 배경과 개혁주의의 대응 / 이은선 24면
- 24호 칼빈주의 vs 알미니안주의 / 정은표(편집) 44면
- 25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 김효성 외 36면
- 26호 이단사이비이 교회사적 고찰 / 박용규 24면
- 27호 칼빈의 제네바교회 교리문답(상) / 정은표(편집) 48면
- 28호 칼빈의 제네바교회 교리문답(하) / 정은표(편집) 56면
- 29호 현대교회의 은사주의 실체 / 김병혁 외 2명 52면

* 주문 : 부록 1권 당 \$2씩에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The Truth Lighthouse
1816 Crested Bird
Irvine, CA 92620
(208)921-5336

<http://thetruthlighthouse.org>



개혁신앙 29호 부록

김병혁 / 개혁신학 관점에서 본

현대교회 은사주의 실체

김 병 훈 / 은사주의운동과 신사도개혁운동의 신학적 특징

예장 고신 57회 총회 / 은사운동에 대한 연구보고

CELEBRATING
THE GOLDEN ANNIVERSARY

SPIRIT FILLED



TOMMY HICKS
A. C. VALDEZ JR.
ORAL ROBERTS



1906-56

EVENING SPEAKERS



DAVID NUNN
WILLIAM BRANHAM
DEMOS SHAKARIAN

AZUSA STREET PENTECOSTAL REVIVAL

**Holy Ghost Filled
Men to Be Speakers**

SUNDAY, 23rd APR. 1st
Rev. Wm. Boykin

MONDAY, SEPT. 17th
Rev. Carl Paul, M.C.
11:00-Rev. E. Carpenter
11:00-Rev. John Bates
2:30-Rev. Ed. Warren
7:30-Rev. William Branham

TUESDAY, SEPT. 18th
Rev. John Bates, M.C.
11:00-Rev. O. C. Hines
11:00-Rev. Robert Harris
7:30-Rev. Samuel Coush
7:00-Rev. James White

WEDNESDAY, SEPT. 19th
Rev. Samuel Coush, M.C.
11:00-Rev. Gordon Lindsey
11:00-Dr. Harold P. Coulter
2:30-Dr. Kala B. Kline
7:00-Rev. Cecil Paul

THURSDAY, SEPT. 20th
Rev. A. W. Carpenter, M.C.
11:00-Rev. James Dine
11:00-Rev. Carl Paul
2:30-Rev. David Prater
7:30-Rev. A. C. Valdez Jr.

FRIDAY, SEPT. 21st
Rev. Kenneth W. Harris, M.C.
11:00-Rev. Sam Graham
11:00-Rev. Bob De Wasse
7:30-Rev. James White
7:30-Rev. Oral Roberts

SATURDAY, SEPT. 22nd
Rev. Samuel Coush, M.C.
11:00-Rev. Howard Barber
2:30-Rev. A. C. Valdez Jr.
And Living Pentecosts of Azusa St.
11:00-Rev. William Branham
The Full Gospel Business Men's
Fellowship International

SUNDAY, SEPT. 23rd
Dr. W. B. Teaford, M.C.
11:00-Rev. James White
Rev. A. B. Orlin's special address

**SEPTEMBER
16 to 23**



**ANGELUS
TEMPLE**
1100 Glendale Boulevard
Los Angeles, California

Take Metro Coach Lines 91 & 94 on 92nd St. and
Line 718 on Spring St. Direct to Meetings

**Sponsored by
Ministers
and Laymen of**

California Evangelistic Association,
Church of God, Full Gospel Business
Men's Fellowship,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Open Bible
Standard Churches, Pentecostal
Church of God, Assemblies of God, Church
of God in Christ, Pan-American
Pentecostal Groups, Greek,
Philippine, Armenian, Scandi-
navian Pentecostal Churches,
Long Beach and Orange County
Full Gospel Fellowships, United
Full Gospel Ministers and
Churches, and other Indepen-
dent Pentecostal Churches.

**Pentecostal
Power Is
Still Falling!**

ALL FREEWAYS
PASS NEAR BY

**Four Daily
Services**
10:00-11:00 A.M.
2:30-3:30 P.M.

개혁신앙 <29호> 발행인 정은표 발행일 2015년 4월 1일
발행처 월간 개혁신앙 idaho_jesus@hotmail.com
1816 Crested Bird Irvine, CA 92620 (208)921-5336



William Joseph Seymour (1870-1922)

김병혁 / 개혁신학 관점에서 본

연대교회 은사주의 실체

1. 시작하는 말

지난 20세기의 교회 역사를 되돌아볼 때, 짧은 기간 동안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를 지목하라면 단연 오순절계통(Pentecostal)의 교회일 것이다. 은사주의운동(Charismatic Movement)은 이 교회들이 주창하는 오순절주의 신학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은사주의운동이 감독교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루터교를 비롯하여 초교파적 운동(ecumenical movement)으로 확산

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정통 기독교와 금을 그었던 로마 가톨릭교회와 급진적인 자유주의, 심지어 사이비 기독교 집단과 이단까지도 아우르는 세계적인 종교현상(a universal religious phenomenon)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근래 이곳 캐나다 캘거리에 공개적으로 오순절주의 신학과 은사주의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교회가 세워졌다. 그 교회가 창립행사를 갖던 날, 캘거리목회자협의회라는 목회자 친목 단체에 소속된 지역교회 목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축하와 덕담을 건네고 교제를 나눴다고 한다. 엄연히 신학과 교리가 다름에도 과연 어떤 형태의 공동적인 신앙적 관심사와 일치를 이룰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은 오늘날 은사주의가 교단과 교파를 불문하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에게 관심과 호감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은사주의자들은 은사주의운동이 남긴 치적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그들은 은사주의가 침체일로에 빠졌던 교회들에게 성령의 활력을 확 불어 넣어 교회부흥의 광범위한 효과와 전 세계적인 수치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세계 기독교를 단시일 내에 가장 보편적인 신앙의 종교로 만드는 데 혁혁한 공로가 있으며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길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현상적으로 본다면 그들 주장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은사주의가 남긴 신앙적 유산들을 성경 말씀으로 꼼꼼히 살펴보면 은사주의의 외적인 확대와 그에 따른 파급력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장은 날조된 속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말은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패한 사람들이라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거나, 은사주의가 끼친 영향은 악한 것뿐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말이 아니다.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참된 경건의 귀감이 되는 성도들이 많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고자하는 믿음에 대한 순수한 동기와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의 표로서 은사주의를 최선의 신앙적 선택으로 여기는 선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있음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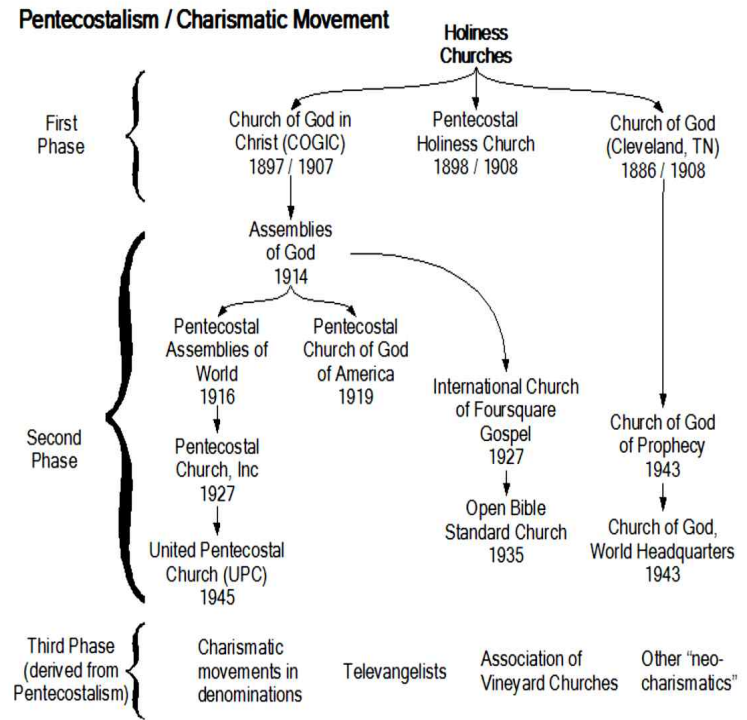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성장을 목표로 하는 집회의 모임에서 활용하는 은사주의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열매들이 나타난다. 은사주의가 활개를 치는 곳에는 어김없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고 이들에 의해 영적 속임과 추문으로 참된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은사주의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진리에 관한 분별력을 상실케 함으로써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의 집회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혼란과 분열 가운데로 몰아가는 실체이며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은사주의의 도전과 범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은사주의의 모체인 오순절 신학(신오순절 신학)이 등장한 지 백여 년이 넘었고, 은사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십 년 전의 일이지만, 은사주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쇠심줄만큼이나 질긴 생명력을 가진 이단적 신앙이다.

오늘날 은사주의의 근원은 초대교회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성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매우 비정상적이고 극적인 형태의 은사주의가 교회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었음을 증거 해 준다. 초대교회 탄생과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오순절 성령강림이후에 초대교회가 겪은 가장 심각한 내용이 다름 아닌 신비주의적 은사주의였음을 말해 준다. 초대교회의 이 잘못 된 은사주의는 대체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기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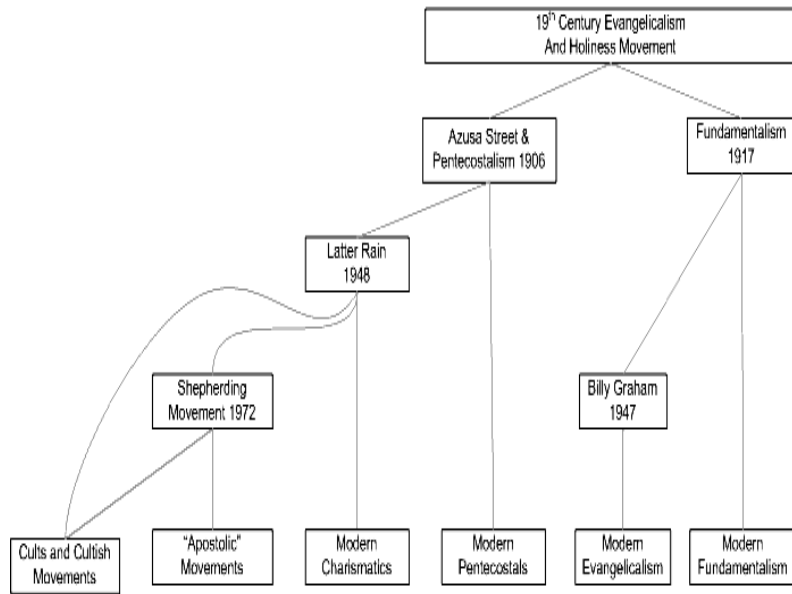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초대교회와 거의 동일한 경험과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시대가 달라도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속성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은사주의의 기원과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적인 비평과 은사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한다.

2. 오순절신학의 역사적 배경



은사주의는 20세기 초에 시작된 오순절 신학(Pentecostal Theology)에 뿌리를 둔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순절 신학의 기원은 2세기 중엽의 초대교회로까지 소급된다. 과도기적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기독교분파 세력 중 하나였던 몬타누스주의(Montanism)의 창시자 몬타누스(Montanus)는 성경 말씀보다 종교적 체험을 강조하며, 금욕 생활과 방언과 기도와 지속적인 예언적 계시를 통해 교회를 개혁하려 하였다.

그는 종국에는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하다가, 자신이 스스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이단자로 정죄되었다.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그를 따르다가 죽은 사람들의 무덤의 표지석에는 “아무개는 우리 주 몬타누스의 이름으로 여기 잠들다.”라고 돌비에 새겨져 있다. 그가 제창한 성령운동은 오늘날의 은사주의운동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몬타누스를 오순절 성령운동의 창시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



또 4세기 말 어거스틴(Augustine)과 신학적 대척점에 서있었던 펠라기우스주의(Pelagianism)도 오순절신학의 뿌리와 닮아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선한 펠라기우스(Pelagius) 신학은 종교개혁 후기 시대(17세기)의 아르미니안주의(Arminianism)를 거쳐 18세기 중엽에 웨슬리 형제의 교회부흥운동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특히 존 웨슬리의 은혜와 의지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의 '성령의 두 번째 축복'(Second Blessing of the Holy Spirit) 개념은 이후 오순절신학의 '성령세례'에 결정적인 신학적 근거가 되었다. 또한 웨슬리안신학 형성에 기폭제가 된 모라비안운동을 비롯하여 재세례파, 퀘이커교도로 대표되는 17,8세기의 경건주의신학 역시 오순절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종교개혁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합리적 사유에 의한 성경해석보다 내면의 빛과 감정적 요소를 통한 직관적인 신앙을 중시한 독일의 경건주의는 선교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19세기 초 미국의 윌리엄 어빙(William Irving)과 찰스 피니(Charles Finney, 1792-1875)에 의해 주도되었던 미국의 제 2차 대각성운동의 알미니안주의적 방법론과 부흥주의의 성령운동과 결합되어 20세기 초 오순절신학을 탄생시켰다.

또한 19세기 영국 형제교회의 창시자 요한 넬슨 다비에(John Nelson Darby, 1800-1882)의 시작된 전(前) 천년설 세대주의의 종말론적 성령론 역시 오순절 신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편 오순절신학의 뿌리는 로마 가톨릭에게까지 뻗어 있다. 로마 가톨릭 신학은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를 교회 결의와 전통에 예속시켰다. 심지어 성경과 동등한 추가적 계시의 여지를 늘 남겨두었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교회의 신앙전통은 중세교회 전반에 걸쳐 하나의 지속적인 신앙전통으로 계승된 가톨릭 신비주의운동에서 꽃을 피웠다.

오늘날 오순절교회 지도자들과 가톨릭교회의 성령운동주의자들과 그리고 오순절 은사주의와 가톨릭 영성운동과 서로 죽이 잘 맞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위의 사실은 오순절 신학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유아독존적 신학이 아님을 말해 준다. 그런데 오순절신학에 영향을 끼친 제 신학들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그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절대 권위보다 개인적 신앙 체험을,
- 계시보다 실존을,
- 이성보다 직관을,
- 진리의 객관성보다 자신의 주관을,
- 말씀에 의한 분별보다 내적 감정을 더 강조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과 그 외에 수많은 종교 개혁 신앙전통에 있는 성도들이 오순절신학과 은사주의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제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3. 은사주의 운동의 세 부류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오순절교회 신학자들은 오순절운동(五旬節運動, Pentecostalism)을 세 부류로 구분한다.

(1) 전통적인 오순절주의(Traditional Pentecostalism)

이는 1901년 미국 캔사스주 토피카의 베델성경대학의 학생 애그니스 오즈맨(A.N. Ozman)양이 성령세례를 사모하다가 방언을 받을 것을 기점으로

20세기 초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성결교 설교자 시무어(William Joseph Seymour, 1870-1922)에 의해 L.A. 다운타운 아주사 거리(현재의 리틀도쿄 거리)에 있는 그들의 은사집회 장소를 통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4중 복음(Four-fold Gospel)' 혹은 '순(Full)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1)구세주, 2)성령 세례 주시는 분, 3)병 고치는 분, 4)장차 오실 왕으로서의 사역이라고 하였다. 특히 전통적인 오순절 주의자들은 중생과 성령세례를 구분하면서 중생한 모든 신자는 반드시 성령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성령세례는 방언을 수반하는 성령의 체험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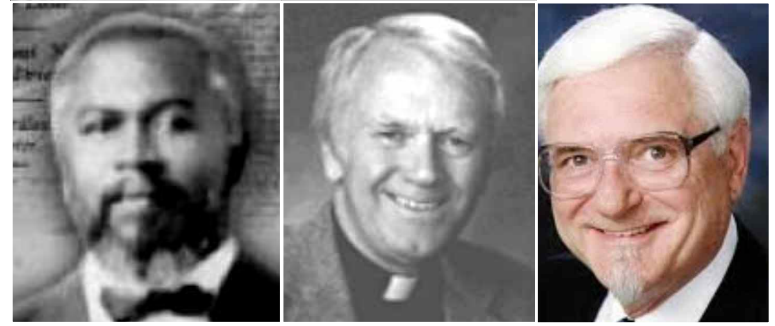
(2) 신오순절주의 / 은사주의(Neo Pentecostalism or Charismatic Movement)

이 부류는 1960년 캘리포니아의 벤나이스에 있는 성공회 마가감독교회(St. Mark's Episcopal Church) 담임 데니스 베넷(Dennis Bennett, 1917-1991) 신부에 의해 확산되었다. 이 운동이 중생과 성령세례를 구분하는 것은 전통적인 오순절주의와 같지만 성령세례의 증거를 방언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인정한다. 1960년대 이후 전성기를 이루면서 이 운동은 오순절사도복음전도관(Apostolic Gospel Mission) 3년 연속집회 전도자로 마틴 웰스 냅(Martin Wells Knapp, 1853-190)의 '하나님의 부흥자' 잡지와 유사한 '사도신앙지'(Apostolic Faith) 잡지 창간자로 모든 유형 오순절교단 교회지도자들에게 오순절 성결 순복음신학의 영향을 준 사도교회설립 전도자 윌리엄 시무어 2세(William Joseph Seymour, 1870-1922)의 부흥집회 후 성결교 교파를 넘어 다른 교파들 속에 퍼졌고 천주교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3) 성령의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of the Holy Spirit)

이 운동의 방법론의 주요 제안자이기도 한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의 교회성장학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Charles Peter Wagner, 1930-)는 제1물결은 전통적인 오순절 운동이었고, 제2물결은 은사주의 운동이며, 제3물결은 그 둘을 결합시킨 것이라고 하였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자들은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의 영적계보는 인정하지만 그 이름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한편 이들은 성령충만을 받아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를 경험하며



은사운동 제작자들(왼쪽부터) William Joseph Seymour(1870-1922), Dennis Bennett, (1917-1991), Charles Peter Wagner(1930-)

표적과 이적을 강조하되 여전히 자신들의 교단에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복음주의자라고 부르기를 원한다. 이들은 교회성장과 능력전도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와의 차별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3의 물결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표준적인 은사주의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4. 은사주의의 특징적 주장과 개혁신학적 비평

(1)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하신다는 주장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은사주의운동의 찬송가가 되어 버렸다. 대부분의 은사주의자들은 때때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나 내적인 영감이나 환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노래를 작곡하거나 시를 짓거나 예언을 말하게 하든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성령의 영감과 조명을 구별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성경 기록자들이 받은 계시 방식대로 새로운 계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은사주의 운동의 대변자 구실을 하는 ‘은사’(Charisma)라는 잡지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려주는 세미나와 테이프와 책 광고가 가득하다.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음성을 듣는 것은 모든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영적 혜택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견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제3물결 운동에 속하는 은사주의 신학자들은 오늘날에도 초대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피터 와그너는 1세기의 사도들의 예언사역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1999년 이후에 수천 명의 소위 예언자들과 예비 예언자들을 모아 ‘전국 예언자 학교’(the National School of the Prophets)를 개최하고, 그 해 부터 최소한 일 년에 두 번씩 교회 지도자로 구성된 ‘예언하는 장로들의 사도 협의회’(The Apostolic Council of Prophetic Elders) 모임을 개최하고 자신이 이 집단의 사도로서 의장직을 감당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와그너와 ‘목사와 예언자’라는 책의 공동 저자인 은사주의자 톰 해몬(Tom S. Hamon)도 오늘날 예언이 없다면 교회가 마땅히 드러나야 할 건강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은 견해를 표한다. 이처럼 지금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과 꿈과 환상을 통해 직접적인 계시와 예언을 경험하는 교회를 가리켜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교회라는 개념에서 신(新) 사도적교회(New Apostolic Churches)라고 부른다.

비평 / 하나님은 최종적이고 완성된 가르침의 체계인 성경을 주셨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지어다. 아멘.”(계 22:18-21)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은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계시(啓示)에 의존한다. 만약 은사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지금도 성경 기자들이 받았던 계시와 동일한 형태의 계시나 예언이 존재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보장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한 문서에 불과할 것이다.

개혁신학은 언제나 성경 계시의 총족성과 종결성을 강조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과거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그의 교회에 자기 자신과 그 뜻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그 계시는 진리를 전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심이

또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 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성경의 필요성은 그 진리를 보다 잘 보존시키며, 전파케 하며, 더 확실하게 세워서 진리 반대운동을 막아 교회에 구원의 위안을 주시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성경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해 주시던 그 방법을 이제(성경이 완성된 후에는)는 정지하셨기 때문이다.”(제1장 1절)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 다시 구원받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때에 맞춰서 성령의 조명(깨닫게 하심)의 역사를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의 참 뜻을 깨닫고 기억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것이 성경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령의 영감과 동일한 방식의 계시와 예언은 전혀 불필요한 일이다. 마치 성경 외에 무언가 새롭고 비밀스런 것들이 직통 계시나 예언을 통해 주어진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성경의 유일성을 파괴하는 사탄적인 기만과 오류이다.(계 22:18-21)

(2) 지금도 초대교회 성령의 초자연적 기적들이 지속된다는 주장

오순절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 사이에 ‘미스터 오순절’로 알려진 데이비드 듀 플레시스(David du Plessis, 1905-1987)는 기적의 시대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믿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작품이었다. 성령은 변하지 않았다. 성령은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통해 이루신 일을 모든 세대에 반복하기를 원하신다.”

듀 플레시스는 사도행전에 묘사된 기적과 사건이 교회역사 전체에 걸쳐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에 비추어볼 때, 그의 잘못된 견해는 오순절주의자와 은사주의자 대다수의 생각을 반영한다. 은사주의자들은 사도시대에 나타난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들(예를 들어 표적, 이적, 병고침, 예언, 귀신 쫓아냄 등)은 지금도 지속되어야 한다.

20세기 후반에 왕성하게 활동한 은사주의 운동의 계열인 ‘빈 야드 운동’의 창시자 존 Wimber(John Richard Wimber, 1934-1997)는 기적, 환상, 방언, 예언, 신유 등은 복음의 본질적인 수단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이러한 것

들이 없는 기독교는 서구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더럽혀진 무기력한 기독교라고 하였다. 실제로 표적과 기적은 제3물결 은사운동의 전도방법의 핵심 골자이다. 이 운동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은 성령의 나타남의 자연스런 현상이기에 성도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래서인지 은사주의자들이 주최하는 집회나 모임에서는 언제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슈가 된다. 많은 교회들에서 때로는 설교보다 기적 경험을 간증하는 순서를 더 중요하게 취급하기도 한다.

비평 /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하지만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에서 언급된 기적과 자신들이 말하려는 기적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간과하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특정한 계시를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일종의 계시의 방편이다. 흔히 사도들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그들에게 사도의 표로서 주신 것들이다.(고후 12:12) 이 기적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관계된 것이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초인적인 힘과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이 집착하는 기적이란 대개 이상하고 단순한 해프닝이거나 우연의 일치거나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는 반복적인 사건일 때가 많다. 일례로 오늘날 기적적인 신유치료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은 많지만 대부분 그들이 말하는 신유에 대한 증거는 검증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유명한 전문 마술사인 제임스 랜디(James Randi)는 수 십 명의 신유 치료자들과 그들이 제시한 사례들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한 권의 책을 발간했다. 그에 따르면 단 한 사람의 신유 치료자도 그에게 자연적인 건강회복이나 심신증적인 개선에 대해 의학적으로 확인된 신유를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양심고백을 하였다.

신유 치료자들로부터 병을 고쳤다는 사람들은 대개 기능성 질환(두통, 소화 불량, 가슴 통증 등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병)이나 심인성 질환(심리적인 부담이나 스트레스로 겪는 마음의 병)과 관련된 것들이다. 즉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기적처럼 기질성질환(기관 자체가 병이 들거나 물리적으로 심

각하게 손상되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나타나는 병)이 정상인의 상태로 완전하게 치료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정말 완벽하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유의 은사가 확실하다면, 왜 신유 치료자들은 언제나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일부 사람을 위해서만 그 일을 행하는가? 사랑의 집을 나누어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일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가? 오히려 초자연적인 은사의 가능성을 남발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거짓이 탄로 날 때에는 가차 없이 상대방의 믿음 부족으로 책임을 돌린다.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초자연적 은사에 집착하는 이들은 신비주의 계열의 이단이나 불건전한 사이비기독교 단체들이었다. 지금까지 은사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초자연적인 은사와 관련해서 병 고침의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적을 행할 수 없으시다 거나 병을 고치시는데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또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적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불변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도들 이후로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이적 기사의 은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개혁주의자들의 믿음이다. 어느 곳에서나 항상 같은 이적이 발생한다면 이적의 특이한 징조와 가치는 상실하게 된다. 이것이 이적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이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살펴보자. 그 이적들은 오직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의 유효성을 확신시키는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었다. 사도 바울의 경우 멜리데 섬에서 이적을 행하고서(행 27:8-10),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는 이적을 나타내는 그의 능력이 확실하게 감소되었다. 그 실례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사도 바울은 그를 낫게 할 수 없었다.(빌 2:25-30) 뿐만 아니라 병든 드로미모의 병을 고치지 못한 채 그를 밀레도에 두고 와야만 했다.(딤후 4:20)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두 완성됨에 따라(계22:16-19),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일부 사도들에게 주셨던 이적의 은사는 점차적으로 철폐되어진 것이 분명하다.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의 여부는 더 이상 이적을 나타내는 은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은사의 불필요함 때문이기 보다는 그 보다 더욱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성경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경건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결코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적에 집착하기 보다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착념해야 한다.(딤후 4:13)

(3) 성도는 성령체험과 성령세례의 증거로 방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

성경을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해석하는 은사주의자들은 구원 이후 체험으로서의 성령세례를 강조한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할 때는 오로지 제한된 의미에서만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능력 속에 잠겨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로 나아가려하고 더 높이 도약하려 한다면 성령세례를 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체험에는 방언이 수반되고 그 결과 새로운 영적 동기 부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

오순절 신학을 철저히 연구한 프레데릭 브루너(Frederick Dale Bruner)는 오순절주의자들의 성령세례에 대한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1) 성령세례는 거듭남과는 '구별되고' 거듭남에 '뒤이어 일어난다.'
- 2) 성령세례는 맨 처음 방언의 표적에 의해 입증된다.
- 3) 성령세례는 '간절하게' 구해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의 성령세례에 대한 주장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구별한다. 이처럼 대부분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은 세례로 모든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회심)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로 모든 신자를 성령께 인도(오순절 체험)하시지는 않는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성령세례를 잘못 이해한 은사주의자들인 그들은 성령 체험, 즉 중생 후 성령세례의 체험을 강조한다.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환상, 꿈, 신유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방언은 성령 체험의 시금석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방언을 하는 것은 진짜 성도임을 증명하는 필수적이고 규범적인 종교적 경험인 것이다.

비평 / 은사주의자들의 중생 이후의 성령세례 교리는 성경에 대한 심각한 해석적 오류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이는 그들이 성경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은사주의자들이 차후 세례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은 사도행전에 국한되어 있다. 사도행전을 제외한 어떤 성경에서도 이 교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이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창설되던 초창기만의 기록을 담고 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예외적인 기적과 은사는 특별한 계시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특이한 시대의 특성이자 결코 모든 시대에 나타나야 할 전형이 아니다.

이처럼 은사주의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는 어떤 일관된 패턴을 찾아 그것을 모든 시대에 적용 가능한 규범으로 삼으려 하지만 교회의 성령사역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행전은 오히려 변화무쌍한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주장하고 가르치는 은사주의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또 다른 성령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규범화 하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이다. 사도행전에 나온 오순절 성령강림은 유일하면서도 독특한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나타나는 외적 표징들은 그리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표적과 이적들은 오순절 성령강림시의 초반에만 강하게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예처럼 사도행전의 후반으로 갈수록 발생 빈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각 지역 교회시대에는 은사주의자들이 강조하여 주장하는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차츰 사라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령세례는 성경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성도의 구속과 구원에 있어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이고 단회적인 구원의 체험이다.(고전 12:13) 왜냐하면 성령세례는 모든 성도가 중생할 때 반드시 체험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시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달리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대로 성령세례가 중생 이후의 구원의 특별한 체험이라는 주장은 비성경적이다.

더구나 은사주의자들이 성령세례를 오직 성령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1:33) 성령체험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성령세례를 받은 증거로서 사도시대와 같은 방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주로 인간적인 소원만을 담아 감정에 호소하여 강조하는 은사주의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무지와 역지가 낳은 최악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세례’라는 단독적인 표현이 없고, 성령을 세례 주시는 분으로 언급한 성경 구절이 없다. 성경에는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만 있다.(요 1:33)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성령에 의해’ 혹은 ‘성령과 함께’ 받는 세례라는 뜻이다. 즉 처음 성도가 성경대로 성령에 의해(또는 성령과 함께) 회심 할 때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다.

성경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요 1:33)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어진 성령에 의해, 혹은 성령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 그러므로 성령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성령의 역사로 받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영적 개념을 좀 더 분명하고 포괄적으로 전달하는 개념이지, 결코 육체의 바람과 관련된 종교적 체험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을 한 성도에게 아직도 성령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은 성경대로 성령을 받은 성도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중생한 사람은 누구나 이미 성령세례를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진정한 중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성경적인 확실한 증거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전12:3)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진정한 중생에 이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은사주의자들의 차후 성령세례 교리의 심각한 오류를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이 교리는 무엇보다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얻는 구원을 부정한다. 이들은 시종일관 더 나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성령세례를 받기 위해 인간적인 열심과 공로를 촉구한다. 이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사람 편에 있다는 펠라기우스주의나 알미니안주의와 다를 바 없는 주장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을 이룬다는(Sola Gratia)의 종교개혁의 교리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비성경적 견해이다.

성령세례에 관한 은사주의자들의 맹점을 인정한다면 그들이 한사코 강조하는 방언 은사의 유효성과 지속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오순절 강림 사건과 같이 초대교회 시대의 방언의 은사와 꼭 같은 은사는 성경기록의 완성과 더불어 종결되었다고 확신한다. 교회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경건하고 복음적인 칼빈주의자와 개혁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견해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 그렇다면 사도시대의 방언이 중단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 1) 사도시대의 방언은 다른 초자연적인 기적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구별 짓는 특별한 표징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에서 방언은 오직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만 언급되어 있다. 신약 시대의 마지막 기적이 일어난 시점(대략 주후 58년경) 그 이후부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시점(대략 주후 96년-98년)까지 방언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특히 방언에 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잠깐 언급한 것 외에는 나머지 열 두 편의 서신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약의 다른 저자들(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역시 방언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침묵하고 있다.

초대 기독교역사도 이 같은 사실을 반증한다. 사도시대 이후로 초대 교회시대(속사도와 교부시대, 1세기-4세기)에 작성된 정통교회의 기록물 중에 방언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다만 방언은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르친 몬타누스의 몬타니즘과 같은 신비주의 성령론을 강조하는 기독교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전유물처럼 취급되곤 하였다. 이후의 역사에서도 자칭 방언 현상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이단적이거나 광신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집단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교회가 증거 한 가르침이다.

2) 성경은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한다.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여기지만, 사도 바울은 방언은 주의해야 할 은사로 여겼다. 사도시대 방언은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그럼에도 방언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집착은 늘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통해 그 심각성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고린도교회에서 문제가 된 방언은 무아지경의 황홀경에 빠져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또 방언을 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처럼 횡설수설하는 뜻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분명 언어의 기본적 요소가 구비되어 의사가 전달되는 말 즉 외국어(foreign language)였다.(행 2:1-13) 그럼에도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방언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조잡하고(coarse) 이상한(strange) 말이다. 이들은 이 말을 천국의 언어(heavenly language)라고 부른다. 그러나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방언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알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할 경우 반드시 방언 통역 은사 자를 세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라고 했다.



은사운동 제작자들(왼쪽부터) John Wimber(Vineyard Movement), John Arnott(Toronto Blessing), Bill McCartney(Promise Keepers)

이처럼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방언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치명적인 논리적 결함이 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유익을 주려면 반드시 공적인 방언 통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전 14:26-28) 그럼에도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의 방언은 통역을 하는 자가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방언이 성경대로 초대교회의 방언과 같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

또 은사주의자들 중에는 방언의 은사를 훈련을 하거나 배워서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 중에 방언하는 법을 가르치거나 훈련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인간적인 질투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설사 배워서 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방언과는 상관없는 거짓된 방언이다. 입을 열어 말은 하는 데 말하고 있는 자신도 자기 입으로 소리 내서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령이 주신 은사로서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자기가 자기 입술로 말한 말의 뜻을 자기도 전혀 알 수 없는 말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와 다를 바 없는 헛된 소리일 뿐이다.(고전 13:1)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누구나 다 해야 한다고 권하지도 않았으며 그 반대이다.(고전 14:4,5) 그 이유는 방언의 은사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나 예언의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나 남을 섬기는 은사나 사랑의 은사와 같은 은사들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방언도 그치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예고했다.(고전 13:8,10) 고로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완성되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로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적인 방언의 은사는 결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사가 아닌 일시적인 은사였다. 이 같은 일시적 방언은 오늘날 완전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도 방언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주장은 성경의 충족성과 완전성 그리고 종결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불신앙과 다를 바 없다.

5. 경계해야 할 은사주의운동들

(1) 알파코스(Alpha Course)

알파코스(Alpha Course)는 영국 런던에 있는 '성 삼위일체 브롬프톤'(Holy Trinity Bromptom Church) 성공회교회(이하 HTB로 약함)에서 1976년에 당시 주임신부(목사, 선생, 형제)였던 찰즈 만함(Charles Marnham)에 의해서 시작된 전도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알파(Alpha)란 명칭은 다섯 가지의 뜻을 표하는 구절의 첫 글자를 모아 만든 두문자어(acronym)이다.

A : Anyone can come(누구든지 올 수 있다.)

L : Learning and Laughter(웃으면서 재미있게 배운다.)

P : Pasta(음식을 함께 먹는다.)

H : Helping one another(서로 섬기며 돕는다.)

A : Ask anything(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다.)

이런 말들의 조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알파코스는 비공식적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불신자들을 접촉하는 기회를 만들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목표 아래 고안된 전도프로그램이다.

영국의 성공회에서 시작된 알파코스는 찰즈 만함 이후, 1981년에 존 어바인(John Irvine), 1985년에 니키 리(Nicky Lee)에 의해 조금씩 변화를 겪었으며, 1990년에 니키 검블(Nicky Gumbel)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발전하여 진행이 되고 있다.

찰즈 만함에 의해 만들어진 초창기 알파코스는 복음에 대한 순수한 면이 없지는 않았으나 니키 검블이 ‘능력전도’를 주창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에 있는 빈야드교회(Vineyard Christian Fellowship)의 지도자 존 워버와 그 교회 팀을 HTB교회로 초청하면서 완전히 변질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알파코스 홈페이지(<http://www.uk.alpha.org>)에 따르면 알파코스의 보급 현황은 놀랍다. 영국에서만 2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명 이상이 알파코스에 참여하였으며, 163개국에서 알파코스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알파코스는 현대판 영지주의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에 있는 빈야드교회의 성령 체험주의, 풀러신학교의 선교대학원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가 시작한 신사도운동의 직통계시, 신오순절주의의 방언 강조, 제3의 물결의 표적과 능력 전도, 뉴 에이지의 신비주의, 로마 가톨릭교회의 영성운동 등 지금까지 언급한 거의 모든 종류의 은사주의의 중요 요소들을 짜집기 하여 하나로 묶어놓았기 때문이다.

2000년을 전후로 알파코스는 한국 교회에도 교회성장과 전도프로그램으로 소개되었다. 1999년 8월 여러 한국 기독교신자들은 유명 목사들의 지도와 후원 아래 ‘21세기 교회 영성목회를 리드할 성경공부’, ‘60개국 65개 교파 46,000여 교회지도자 세미나 참석’, ‘성령 치유 세미나’ 등의 문구로 알파코스 세미나 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었다. 또한 알파코스는 한국 내 교회에서뿐 아니라 해외 한인교회에까지 그것이 성경과 얼마나 다른지를 모른 채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알파코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알파코스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에 너도나도 불나비처럼 달려들어 많은 교회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몇몇 장로교단의 명망 있는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알파코스에 대한 신학공청회가 열리면서 이단성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주요 4대 교단(합동, 통합, 합신, 고신) 총회는 알파코스를 교회에 해로운 불건전한 프로그램으로 규정했다.

(2) 셀(Cell)과 G12

셀(Cell)과 G12는 은사주의를 배경으로 알파코스를 변형시킨 교회성장

프로그램들이다. 이 프로그램 역시 최근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전 세계 기독교에 불고 있는 커다란 트렌드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셀(Cell)이란 교회성장을 위한 구역조직의 번역어인데, 교회성장 전문가들에 의해 한국 교회 구역조직이 셀(Cell)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조용기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부상하고 그 성장 비결이 구역조직에 있다고 알려지면서 부터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교회에서 유행하는 셀(Cell)은 외국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교회성장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한국에 역(逆) 수입된 것이다.

G12 프로그램은 셀 양육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영어의 대문자 G는 Government(정부)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는 문자이며,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12명의 제자를 의미한다. 즉 한 리더가 자신 밑에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가 독립하여 무한 번식하도록 하는 숫자적인 교회성장 훈련시스템이다.

하지만 셀(Cell)과 G12는 급속한 교회성장에 대한 갈망이 지나쳐 정통교회 체계를 부정하는 한편,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와 같은 불건전한 신학사상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3) 빈야드운동(Vineyard Movement)과 토론토축복(Toronto Blessing)

‘빈야드운동’과 ‘토론토축복’도 은사주의운동이다. ‘빈야드’라는 이름은 캘리포니아의 애나하임(Anaheim)에 있는 빈야드교회(Vineyard Churches) 교회 이름에서 온 것이다. 히피 음악작곡가였던 존 Wimber(John Wimber)가 척 스미스(Chuck Smith, 1927-2013) 목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후 갈라나가 빈야드교회를 개척했는데, 존 Wimber와 함께 전도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형성한 단체가 ‘빈야드교회연합’(Association of Vineyard Churches)으로 이제는 일종의 교단처럼 되었다. 그리고 ‘토론토축복’은 존 아노트(John Arnott)가 존 Wimber와 함께 빈야드교회를 섬기다가 갈라나가 개척한 ‘토론토공항교회’(Toronto Airport Vineyard)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언론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빈야드운동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특히 강조하는 권능주의와 성령체험의 감정적요소를 강조하는 감정주의의 두 관점이 강조되는데, 능력전

도를 주장하는 존 Wimber의 경우는 권능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고, 감정적 체험을 중시하는 존 아노트는 감정주의적인 면이 강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1) 전체적으로 이교도적 신비주의와 2) 극단적인 체험주의와 3) 비상식적 무형식주의라는 은사주의의 극단성이 골고루 나타난다고 하는 점이다.

(4) 프로미스 키퍼스(Promise Keepers)운동

프라미스 키퍼스(Promise Keepers,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운동은, 존 Wimber의 빈야드친교회(Vineyard Fellowship) 회원들이 1991년에 시작한 남성운동이다. 콜로라도 대학의 축구코치인 빌 맥카트니(Bill McCartney)가 그의 목사인 제임스 라일(James Ryle)과 함께 이 운동을 창시했다. 제임스 라일 목사는 극단적 은사주의 파에 속한다.

제임스 라일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비틀즈는 하나님의 손으로 은사를 받았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음악적 부흥을 통한 은사주의적 갱신을 시작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오늘날도 자기 백성에게 여전히 음성으로 말씀하심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사용하는 ‘프라미스 키퍼스의 일곱 가지 약속들’(Seven Promises of a Promise Keeper)이라는 책에서 빌 맥카트니는 여섯 번째 약속을 ‘연합으로의 초청’이라고 이름 붙였다.

오늘날 다른 많은 운동들과 같이 이 운동의 문제점은 은사주의적이면서 또한 에큐메니칼한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자유주의적 교단들을 문제 삼지 않으며 심지어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래서 CCC의 빌 브라이트, 윌로우크릭교회의 빌 하이벨즈, 무디성경학교 교장 조셉 스토크, 척 스윈들, 척 콜슨, E.V. 힐 등고 같은 에큐메니칼 인사들이 이 운동의 주요 연사들이었다.

오늘날은 분명한 사상적 제한성이 없으면, 초교파적 운동 자체가 이런 문제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자유주의 이단사상을 포용하는 에큐메니칼정신과 은사주의적 특징들은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난다.

6. 맺음 말

은사주의를 한 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은사주의 신학을 반영하는 스펙트럼의 범위가 대단히 넓기 때문이다. 은사주의 내에는 이단과 다를 바 없는 천박하고 극단적인 부류에서부터 정통 복음주의와 매우 친밀한 부류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은사주의가 있다.

앞서 서두에서 밝힌 대로 은사주의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보다 성경적인 사고와 통찰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실 무망한 마음으로 은사를 추구하는 성도들도 있음을 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 본 은사주의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은사주의를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을 만나기란 요원한 일임이 분명하다. 은사주의라도 겉모습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은사주의의 비성경적 오류와 신학적 불건전성의 씨앗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은사주의는 사탄이 현대 교회의 성(城)을 파괴하기 위해 교회 마당에 몰래 들여 놓은 트로이 목마(Trojan Horse)가 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이미 교회 마당 깊숙이 들어 와 있지만 트로이 목마의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과연 진리에 관한 한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지닌 이 질기고 역센 존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1) 성경적 분별력을 갖도록 노력하라.

오늘날 우리는 진리에 대해 냉소주의와 회의주의가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믿지 않는 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들 역시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관심이 적다.

은사주의 역시 겉으로는 종교와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내면은 진리에 대한 불신과 오류가 가득한 불신앙과 진배없다.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한다. 어느 시기보다도 지식과 명철이 요청되는 때이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살전 5:21,22) 한다. 이러한 지혜와 결단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며, 지금까지 그들이 해온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그들이 앞

으로 일으킬 그들의 일을 정확하게 예상하는 한편 신중하게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성경을 깊이 알도록 힘쓰자.

(2)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라.

성경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불신앙은 타협과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함께 힘을 모아 힘써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다. 은사주의는 한 입에 교회와 성도를 삼키려는 듯 우리 곁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다. 비록 전쟁은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지만, 이 영적 전투에서 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영적 군사로 부름 받은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진리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 성도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활용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고후 10:5) 수 있게 될 것이다. 진리의 싸움에서는 오직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 그것만이 성경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적 승리를 보장해 준다.

(3)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라.

은사주의와의 영적 싸움은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때까지 은사주의와 같은 잘못된 사상은 더 활개를 칠 것이며, 더욱 강한 기세로 교회와 성도를 위협할 것이다. 종국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성경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엡 4:21) 대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리 안에 머물 때에 그 무엇이 두려우랴!(* 글쓴 이 / 김병혁 목사(캘거리 개혁신앙연구회))

이며 하비스트락교회(HROCKCHURCH) 담임목사인 한인 1.5세 체 안(Che Ahn) 목사가 한국에서 모였던 집회(2006. 5. 8-10, Cindy Jacobs 초청 잠실 올림픽홀)에서 한 간증의 한 토막을 살펴보면 잘 나타난다.

부흥은 많은 현상을 동반한다. 많은 떨림이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과의 만남이 있을 때 환경에 대해서도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나는 강력한 몸의 진동과 떨림이 있었다. 실성한 사람처럼 뛰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몸을 볼 수 있었다. 내 영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영광이 둘러서 있는 보좌를 봤다. 주님과 하나 되는 순간 '너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앉아 있다.' 고 하셨다. 보좌는 권세를 뜻한다. 즉시 내 몸으로 돌아왔다. 이 육체이탈을 경험한 이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amennews.com, 2006.6.5., 전정희, 밀려드는 신사도적 개혁 운동 파도, 교회와 신앙)

체 안(Che Ahn) 목사는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에 기초하여 그는 육체이탈의 경험을 말하며, 그것이 곧 성령의 부흥이라고 말한다. 이는 성경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려운 신비주의적 체험을 통한 현세의 문제 해결을 말하는 주장이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체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것이 곧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육체이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라고 말했다. 그러한 은혜의 체험으로 인하여 바울 사도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당하는 일을 오히려 기뻐하노라 라고 말한다. 그러나 체 안(Che Ahn) 목사는 자신의 신비적 체험을 말하면서 집회에 모인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며 자신의 기도를 따라하도록 하였다.

세계 주신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종교의 영을 뉘나니, 궁핍의 영을 뉘나니, 끊어버리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다시 심나니, 믿음으로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더 나은 직장을 받습니다. 월급의 인상을 받습니다.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유업을 받습니다. 모든 빛이 끊어졌습니다. 수표가 내게 날아옵니다. 형통함이 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전정희, 밀려드는 신사도적 개혁 운동 파도, 교회와 신앙, amennews.com, 2006.6.5)

바울 사도의 기도와 이 기도가 얼마나 다른가는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신(新) 사도적(使徒的) 직접계시(直接啓示)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Benny Hinn(1952-) is a televangelist, best known for his regular "Miracle Crusades"-revival meeting or faith healing summits that are usually held in stadiums in major cities, which are later broadcast worldwide on his television program,

은사주의운동과 신사도개혁운동의

신학적 특징에 대한 소고

1. 몇 가지 실례들

‘제3의 물결’(은사주의 운동, Charismatic Movement)의 신학적 특징들은 신사도개혁운동의 주창자인 국제추수선교회(HIM)의 설립자이며 공동대표

복음의 이해와 삶이 사도와 얼마나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비록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인터넷에서 그들과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면 상당한 정도로 알 수 있다. 이 시대의 여성 예언자(?)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는 씬디 제이콥스(Cindy Jacobs)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다.

하늘로부터 두루마기가 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와 있다. 여기에! 저기에! 저 저 뒤로 가고 있다! 바로 이 자리에! 여기! 저기! 취하라! take it! 뒤로! 뒤로! here! here! 여기 임재! 받으라! 취하라! 하나님의 파도가 임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지금 일하고 있다.(전정희, 밀러드는 新시대적 개혁 운동 파도, 교회와 신앙, amnews.com, 2006.6.5)

씬디 제이콥스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자기 눈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것을 회중들로 하여금 자기의 손을 들어 잡는 손짓과 더불어 취하여 받으라고 외쳤다. 그녀의 이러한 메시지와 그녀가 자기 눈으로 본다고 말하는 그 현상에 담겨 있는 심각하게 성경과 다른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점과 오류들은 그녀의 집회 현장 안에서는 오히려 성령의 물결이며 능력의 체험으로 간주되는 분위기에 덮여지고 오히려 고무된다.

2. 은사주의운동의 신학적 특징

‘제3의 물결’(은사주의 운동)은 다음과 같은 신학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1) 예언, 지혜, 지식의 은사를 강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청취하여 예언(豫言)과 지혜(知慧)와 지식(知識)의 말씀을 전하는 신령한 은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알파코스(Alpha Course)에서도 중심적인 은사로 높임을 받는데, 그 예언의 은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여야 되는가와 관련한 내용,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야할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야할 것인가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결정을 지시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우리가 다 믿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Che Ahn(Harvest Rock Church Lt.), Cindy Jacobs(morning star ministry Rt.)

역사와 삶 가운데 자신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옳은 도리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교훈을 보이셨고, 이 교훈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여 순종토록 하셨다.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서도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행동을 하도록 교훈하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개인의 세세한 삶의 정황 안에서 신탁을 통하여 구체적인 인도를 받도록 교훈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성경은 누군가가 이러한 구체적이며 세세한 삶의 선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여 주겠다고 주장하는 점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이므로 너희 가운데서 그를 제하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다.(신 18:9-14)

지식의 말씀은, 알파코스(Alpha Course)와 빈야드교회(Vineyard Church)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은사 가운데 하나다. 이들은 치유(治癒)의 은사를 행하기 전에 모인 이들 가운데 누가 치유를 받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여 낸다. 예를 들어, 이 자리 모인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러저러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러한 사람을 찾아낸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픈 부분과 동일한 신체 부위에

자신도 아픔을 느낀다고 하며 그런 사람을 찾아낸다고 한다. 말하자면 지식의 은사는 치유의 은사와 함께 치유를 실행하는 은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언과 지식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직접 받게 됨으로 그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에 방불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보다 더 우월한 권위를 갖는다. 삶의 자리에서 성경의 교훈을 받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비밀한 예언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에게 영적 형편을 의지하게 된다. 말하자면 그 예언자(?)에 의하여 영적질서가 재편성 되며, 은사가 보이는 능력의 규모에 따라서 권위가 계층적으로 형성이 되며,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열쇠를 지닌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즉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제사장, '다리를 놓는 자'(pontifex)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열쇠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도 시대에 있었던 예언의 은사는 살아 있던 사도들에 의하여 무리한 무질서가 나타나지 않도록 통제를 받았다. 즉 성경의 권위에 의하여 성령의 은사가 통제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사도들에 의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이 된 이후에,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어떠한 예언이나 계시가 있다는 것은 성경과 더불어 최종적인 또 다른 성령의 계시적 권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2) 능력 기도를 강조

'제3의 물결(은사주의 운동)'의 또 하나의 신학적 특징은 이른바 '능력기도'의 추구이다. '제3의 물결(은사주의 운동)'의 능력기도의 능력이란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어떠한 현실의 미래도 우리의 의지(意志)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능력을 뜻한다.

현실과 미래를 바꾸는 능력기도에 담겨 있는 '능력의 신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와 충돌 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담고 있기 때

문이다. 우리는 신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성품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죄를 범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회개와 거룩한 순종의 인도함을 받는다. 복음은 고난의 십자가를 포함한다. 십자가의 신학이면서 또한 고난의 신학이기도 한 복음은 빈야드운동에서 말하는 능력의 신학과는 다른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음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어 심어주신 새 생명의 성품에 따라 성경의 교훈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현실을 바꾸는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요컨대 '능력의 신학'은 '고난의 섭리'를 부정하는 그릇된 결과를 낳는다.

(3) 치유 사역을 강조

알파코스(Alpha Course)와 빈야드교회(Vineyard Church)의 신학적 특성들 가운데 '치유사역'은 특별히 그들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있다. 여기서 치유사역은 외적인 신체의 치유뿐 아니라, 내면적 감정 및 영혼의 치유까지 망라한다. 앞서 말한 예언적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알아낸 후 치유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위해 기도한다.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사역을 단순히 긍정적으로 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할 교회사역의 핵심적 요소로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이다.

빈야드교회(Vineyard Fellowship) 설립자 존 Wimber(John Wimber)가 그의 책 '능력전도'(Power Evangelism, 나단출판사, 2003년 7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already not yet)으로 표현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의 이해에 따라서 자신들의 치유사역을 설명한다.

이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의한 치유사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즉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치유의 효과적인 범위 측면에서 양적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Toronto Blessing

하지만 치유사역은 '이미'로서의 하나님나라의 현재성을 드러내는 표적일 뿐 하나님나라 자체는 아니다. 즉 치유, 축사, 죽은 자를 살리심, 오병이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 물 위로 걸으심 등의 이적들은 이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가 이루실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가리키는 표적들이다. 이런 표적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평강의 나라, 임마누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보이신 것이다.

결국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의 부활로 인하여 성취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은 아님'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재림으로 완성될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위한 십자가 죽음을 이루시고 또한 부활을 하셨으니, 이처럼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구속 사건들을 믿거나 그 의미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표적들이 다시 새롭게 나타나기를 바랄 이유나 그것들에 의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과거에 있었던 표적들을 믿고 그것들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표적으로써 가리키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바르게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인하여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 됨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뜻하는 것이지,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치유의 사역을 행하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8장 16,17절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는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는 이사야 53장 해석과 관련을 갖는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말해 준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8장에서 치유와 관련한 이적에 대한 해설을 이사야 53장으로 연결한 것은 그 치유의 이적이 그 자체로 실체가 아니라 죄 사함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적임을 말해준다. 즉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표적인 것이며, 그 표적들은 실체인 구속 사역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구속사역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아닌 것이다.

만일 '이미'라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치유사역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음을 말하며, 또 '아직은 아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모든 이들이 다 치유를 받는 보편적 완전성을 뜻하는 것이라면, 왜 비단 치유사역만이 그렇게 이해되어야 하겠는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도, '오병이어' 이적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도, '물 위로 걸으시는' 이적 등도 현재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은 아님'은 치유사역의 효과적인 범위에 따른 양적 개념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질적 완성의 개념에 따라 구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의 관점에서는 '능력전도'의 변명이 신학적 타당성을 잃는다.

3. 영적 전쟁

끝으로 빈야드 '제3의 물결'의 신학의 특성 가운데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영적 전쟁’(spiritual warfare)에 대한 이해이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매우 심각하다. 프랑크 피레티(Frank Peretti)가 쓴 소설 ‘어둠의 권세’(This Present Darkness, 예찬사, 1986)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영적 실상이 그러한 것처럼 이해하는 커다란 잘못을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오는 영적 싸움의 대상은 뉴에이지를 좇는 사람들 또는 악한 영들이다. 악한 영과의 싸움은 피터 와그너(Peter Wagner)가 그의 책 ‘기도는 전투다’(Warfare Prayer)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적, 주술적, 전략적 전투의 세 구조로 실행이 된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전제는 각 지역과 나라와 대륙마다에 각각의 영역을 관장하는 귀신들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과 개인적이며 주술적이며 전략적인 차원에서 전투를 실행하여야 하며, 이것이 성도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물리적인 물체나 건물들도 귀신들에 의하여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건물이나 물체들을 향하여서도 축사(逐邪)를 통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귀신들과 맞서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술적이며 전략적인 영적 전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축사(逐邪)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의한 대리적 전투를 통해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영적 전쟁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전쟁과 다른 것이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영적 전쟁은 귀신들과 직접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도리를 확신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사랑과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를 실현하며 섬기는 것과 관련한 것이다.

에베소서 6장에서 확인이 되는 영적 전투와 관련한 모든 교훈들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already)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영에 대하여 승리를 하였으며(엡 2:1-3), 장래에 있을 완전한 구속을 보증하는 성령을 받았다.(엡 1:13,14)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승리한 것이요, 완전한 승리는 ‘아직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도가 지역에 속한 악한 영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귀신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감행하여야 하는 전략적 의미에서의 영적 전투는 결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영적 전쟁이 아니며,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 글쓴 이 / 김병훈 교수(합신조직신학)



어느 한인교회의 신유 은사집회의 한 장면

예장 고신 57회 총회 은사운동에 대한 연구보고

현재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교회이다. 그러나 오늘의 성장과 더불어 한국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다. 한국 교회 초기나 일제 치하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이후에도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은 이단들이 준동하였다. 특히 교회 성장 일변도로 치달던 1980년대 이후, 한국 교회 안에는 수많은 교회성장론과 목회방법론

이 도입되어 실행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은사운동중심의 교회성장운동인 빈야드운동과 같은 은사운동은 한국 교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¹⁾ 이런 비성경적인 은사운동으로 인한 교회성장운동의 혼란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교회성장을 위한 바른 성경적인 은사 이해를 출발점으로 삼아 이런 유의 은사운동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 한다.

1. 성령의 은사

은사(恩賜)란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신약 성경에서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인 이 단어는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것 등과 같은 특별한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혼인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은사라고 말하며 혼인하는 것도 은사라고 말한다.(고전 7:7)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은사’라고 하는 말은 초자연적인 것이나 가시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인 재능과 우리가 처한 특수한 형편과 처지도 다 은사라고 부르고 있다. 즉 위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1:17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라고 한다.

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을 ‘은사’라고 부르고 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의 은사는 대개 이런 의미의 은사이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와 영생도 은사라고 한다.(롬 5:15,16, 6:23)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교인들이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는 기능과 능력 또는 자질을 성령의 은사로 부르고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는 성도의 삶에서 다양한 은사로 나타난다.

신자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며(롬 12:6), 은사와 직임과 역사는 여러 가지이다.(고전 12:4-6) 모든 신자들은 한 몸의 지체들이나, 직분과 은사는 각각 다르다.(롬 12:4,6; 고전 12:11) 그리고 은사들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있다.(고전 12:7, 14:4,5,17; 엡 4:12-16)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성도는 덕을 세우는 목적으로 모든 은사를 활용해

야 한다.(고전 14:26) 은사를 받은 성도는 그 은사를 자기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따라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전 12:31-13:13)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고전 8:1, 16:14) 사랑은 은사 활용의 대원리이며 목적이며 동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위해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바울이 언급하는 은사들은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勸慰), 구제, 다스림, 금식을 베푸는(롬 12:6-8),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방언 통역(고전 12:8-10),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엡 4:11) 등이 있다. 또 손님 대접, 하나님의 말씀 증거, 대언(代言)도 은사다.(벧전 4:9-11) 이처럼 너무 평범하여 은사로 불리기에 좀 모자라다고 느낄 만큼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않는 것도 있고, 방언이나 신유(神癒)처럼 이목을 집중시키는 성령의 은사도 있다.

그런데 교회가 은사들을 무시하거나 소멸한다는 비판을 종종 듣는데, 이것은 대개 열광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신약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소치일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의 세계교회사에서 유래 없는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열광적인 성령 은사들과 성령세례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른바 ‘성령운동’과 그중에서도 특히 존 워버의 빈야드운동과 그와 유사한 운동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성령의 은사와 성령세례

한동안 성령운동의 ‘제3의 물결’이 한국 교회를 강타하였고, 지금도 그 여파를 느낄 수 있다. 이 운동의 모체는 빈야드교회의 존 워버(John Wimber, 1934-1997)가 시작한 ‘능력 종교’(Power Religion)이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월남 전 이후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히피들의 모임에서 록 그룹의 키보드를 연주하며 히피 음악 작곡을 하던 워버는 척 스미스에 의해 1963년에 회심하여, 함께 활동하다가 나뉘어져서 1970년부터 퀘이커교회(Yorba Linda, California)의 목회자로 사역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에는 풀러신학교의 선교대학원에서 전도 및 교회 성장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는 오순절운동과 은사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고, 표적(表蹟)과 기사(奇事)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때부터 성경에 대한 관심보다는 은사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그의 사상과 사역을 주도한다. 1977년에 그는 애나하임시에서 빈야드교회를 개척하였다.²⁾

임버는 표적(表蹟)과 기사(奇事)를 수반하지 않는 복음은 무력하다는 입장에서 ‘능력 전도’와 ‘능력 치유’를 추구한다. 그는 자신이 저술한 책에다 ‘능력’을 넣기 좋아한다.(Power Evangelism, Power Healing, Power Points, Power Encounter) 그가 말하는 능력은 성령의 구체적 은사, 곧 치유와 축사(逐邪, 귀신을 쫓아냄)와 예언 등을 말한다. 그는 전통적인 전도방법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능력 전도와는 비견할 바가 아니라고 말한다.³⁾

전통적 오순절운동에서 방언을 필수적 은사로 여겼던 것과는 달리 임버는 방언을 많은 은사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교회 개척에 모든 사역의 초점을 둔 것 자체는 문제 삼을 것이 없다. 미국의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의 전도 및 교회 성장 연구소의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는 임버의 이런 특징을 들어 ‘제3의 물결’이라 명명하였다.⁴⁾

임버와 동역자로 같이 사역하다가 1995년에 결별한 존 아노트(John Arnott)의 ‘토론토 축복’(Toronto Blessing)도 주목을 받았다. 1988년에 토론토 공항 빈야드교회를 개척한 아노트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마지막 위대한 역사’를 펼치려고 전 세계를 두루 여행하고 있다.⁵⁾

빈야드운동은 근본적으로 성령운동에 의한 복음전파와 교회성장에 강조점이 있다. 이들은 방법론적으로 교회의 수적성장을 겨냥한다. 즉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표적과 기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며, 이를 동반하는 복음전파의 능력을 강조한다. 이들은 설교보다 표적과 기사를 강조하고, 이것을 체험한 자들이 행하는 감정의 표현이나 간증을 중시한다.⁶⁾

이들은 예수님이 행한 표적과 기사를 능력의 대결로 본다. 특히 아노트는 예배와 집회에 나타나는 통곡, 파안대소(破顔大笑), 경련과 쓰러짐의 현상, 그리고 각양 동물 소리 등을 능력 대결의 증거라고 말한다. 그는 이런 체험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려고 한다.

피터 와그너는 치유 방법론을 개발하여 훈련시킨다.⁷⁾ 그는 1997년 오순절운동, 은사운동뿐만 아니라 빈야드운동을 주도하는 교회들의 세계적인 연합을 촉구하며 자신이 ‘신(新) 사도적개혁운동’(New Apostolic Reformation Movement)으로 정의한 새로운 교회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또 와그너는 1998년 미국 콜로라도 주 스프링스에 본부를 둔 ‘와그너 리더십 연구소’(Wagner Leadership Institute)를 설립하고, 한국에도 지부를 두고 있다. ⁸⁾

‘신(新) 사도운동’은 빈야드운동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믿는 운동이다. 따라서 이적, 신유, 귀신 축출,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등 초자연적인 것과 초대 교회에 번성했던 방언, 예언, 통역 등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된다고 믿는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신사도운동은 에베소서 4:11에 근거한 ‘교회의 5대 직분 체제’ 즉 ‘사도, 선지자(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교회에서 올바르게 자리 잡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신사도운동은 오늘날도 하나님에게서 직접 메시지를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예언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또 성령의 은사를 전수(impartation)할 수 있고, 과거와 같이 맹목적으로 회개하는 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 부으심 앞에서 통회와 자복으로 본질적인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⁹⁾

최근에 한국 교회 일각에서 ‘금이빨 변화’ 사건이 관심을 끌고 있다. 유대인 출신의 브라질 사람 모아실 페레이라(Moacir Pereira) 목사가 이런 금이빨 변화와 다른 형태의 신유적 사건의 주역이다. 이들에 의하면 썩은 이빨이 기도로 금니로 변하고 짧은 팔이 길어진다. 키가 작은 사람은 커지고 짧은 다리가 길어진다. 손바닥에 물권을 상징하는 금가루와 기름이 흐른다. 귀가 안 들려 고생하던 어린이의 귀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 살이 빠져서 입고 있던 옷이 흘러내린다. 심지어 얼굴 윤곽이 바뀌어 성형 수술을 한 듯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 알파코스를 권장하는 알파 코리아의 여러 집회에서도 금이빨 사건이 일어난다고 한다.

‘금이빨 변화’는 1970년대 남미에서 처음 시작되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까지 건너갔다. 1990년대 초 토론토공항교회 담임 목사 존 아노트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집회에 갔다가 이것을 보고 본국의 집회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이 미국과 캐나다의 빈야드교회들에 확산되었다.

빈야드교회가 알파코스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이 금이빨 변화는 영국의 은사주의교회들에서도 실시되었다. 금이빨 변화는 얼마간 지속되었으나, 1990년 초반 이후로는 이에 대한 보도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금이빨의 변화가 한국에서는 알파코스를 도입한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급작스럽게 교계에 화제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알파코스나 알파코스의 내용 중 금이빨 변화와 빈야드적 쓰러짐의 현상 모두가 외국에서 도입된 것이다.

빈야드운동이나 신사도개혁운동은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로부터 지지 세력을 규합한다. 토론토와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시의 현지 집회에 참여한 상당히 많은 보수적 경향의 목회자들을 통하여 이 운동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후자는 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금이빨 운동은 부흥회의 형태로 한국 교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무엇보다도 치유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3. 방언과 치유

금세기의 성령운동은 방언과 치유를 중생이나 성령세례의 표적으로 앞세운다. '고전적' 성령운동은 성령세례와 방언을 말하나, 빈야드운동 및 이와 유사한 운동들은 치유를 포함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모든 은사들이 지금도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성령세례와 방언

이들은 성령세례의 특징으로는 성결, 하나님과의 직접 교통의 체험, 증거의 능력, 성령으로 기도함, 일반 신자와 구분되는 고상한 체험, 기쁨, (마약) 중독에서의 해방 등을 든다. 사도행전 2장 등은 모든 성도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 본보기이다. 이들에게서 특별히 잘못된 성경해석으로는 성령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것이 아니므로, 성령세례를 특별히 간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¹⁰⁾

성령세례를 주장하는 이들은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서 나타나야 한다고 보면서,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서 특히 방언을 성령 세례의 가시적 증거로 제시한다. 사도행전 2장과 19장을 그 예라고 말한다. 초기 오순절주의자들은 방언을 생면부지의 언어로 보았으며,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언어기관을 사용하는 성령의 자기 현시로 이해했다.

이것이 후기에 가면 인간의 영(靈)이 발하는 방언을 뜻하게 되었다. 더러는 성령세례 시에 나타나는 단회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하고, 더러는 지속적인 은사로도 본다. 어떤 이들은 방언의 표적의 의미를 상대화하기도 한다. 더러는 방언을 공부하거나 훈련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다고도 한다.

이와 같은 방언을 비롯한 오순절의 은사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무엇보다도 이들은 성경의 증거보다는 체험을 중시한다. "오순절 운동의 최대 특징은 어떤 구체적인 체험이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데에 있다. 체험이 오순절 운동의 발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해석의 열쇠일 뿐 아니라, 그 체험이 없는 자는 대화의 상대도 되지 못한다."¹¹⁾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강림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같을 수 없다. 우리는 사도행전 등에 기록된 몇몇 특별 은사들은 사도 시대에 교회 설립과 설교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했다고 여긴다.¹²⁾ 특별 은사들은 구속 역사의 획기적인 진전을 알리는 증거이다. 우리가 위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복음이 사도행전 1:8에 예언된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증거 됨을 사도행전은 보여 준다. 특히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구원 역사의 진전을 이스라엘에게 공표하는 표적이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교회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족속을 포함하는 축복(창 12:3)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교회(고넬료 가정)에 임한 동일한 성령과 방언은 구원의 진전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성령 안에서 무너졌음을 보여 준다.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방언은 세례 요한의 남은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시위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는 구원 역사적인 진전의 표시로 방언이나 예언이 증거로 주어졌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고(행 4:31),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행 13:52) 또 방언을 말하기도 했고(행 10:46), 예언도 했다.(행 19:6)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는 성령충만이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행 6:3, 7:55)

그러나 사도행전 8장, 10장과 19장에는 성령세례의 증거들이 나타나지만 성령충만이라는 표현은 없다. 사도행전 이외의 서신서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있지만(엡 5:18), 지속적으로 성령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없다. 따라서 소위 성령세례와 그 증거인 방언을 오늘날 우리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빈야드운동과 그와 유사한 운동들의 치유 사역

빈야드운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 운동이 치유를 포함하는 열정적인 은사를 사역자와 성도의 표지(標識)로 삼는 것은 이 운동이 과거의 성결운동과 오순절운동 및 은사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의 표적과 기사들이 지금도 나타나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빈야드운동은 오순절운동이나 은사운동보다는 더 전통적이며 대부분의 정통 교리들을 따른다. 예를 들자면 이들은 오순절운동이나 은사운동과는 달리 중생과 구별되는 성령세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¹³⁾ 비록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빈야드운동은 오순절운동이나 은사운동보다 더 과격한 측면을 지닌다. 가령 이들은 치유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주장하며, 예언의 은사 등을 강조한다.

이런 주장은 계시 이해의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이들은 표적과 기사는 직통 계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계시나 은사가 성경을 대치하거나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은사들은 성경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¹⁴⁾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은사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강조하고 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지닌 판단의 표준으로서의 권위는 항상 위협받

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들이 추구하는 집회는 감정을 앞세우며, 직접 계시를 갈망하는 열광주의적 경향을 늘 수반한다. 성경이 아니라 체험이 판단의 표준으로서의 권위를 차지할 위험이 상존한다.

쓰러짐이나 금이빨로 변화 사건 등을 과연 성경적인 은사로 볼 수 있을까? 특히 금이빨 변화 현상은 오순절운동이나 은사운동 등에서 나타났다는 보고는 거의 없다. 유독 빈야드운동이나 이와 연관된 운동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넘어짐이나 금이빨 변화를 성경적 신유의 은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무리 ‘능력 전도’를 말하고, 사악한 오늘날의 세대는 이런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런 현상은 성경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게다가 인간은 본래 표적이나 기사에 대한 맹목적인 호기심을 가진다. 자연인들이 지닌 일반적 태도는 “기사(奇事)를 베풀라. 그러면 저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리라.”는 호기심과 같다.¹⁵⁾ 예수님도 자기의 교훈에는 상관하지 않고 표적과 기사만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다.(요 4:48)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하였다.(고전 1:22,23)

한국 교회사에는 건전한 사경회(查經會)를 통하여 회개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1907년의 부흥 운동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경회와 회개 운동에는 신유와 같은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전도와 구령(救靈)사업, 대사회적인 절제운동도 왕성하게 일어났다.

그렇지만 1907년의 부흥운동 후에는 이단도 많이 일어나서 극성을 부렸다. 급기야는 일본(日本)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신사참배(神祠參拜) 강요로 말미암아 과거에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하나 둘씩 이상숭배의 범죄에 빠지고 말았다. 은사운동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사수한 극소수의 교회와 교인들만이 신사 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였다.

일제(日帝)로부터의 해방과 산업화 이후 한국 교회가 취한 방법론적 성장운동은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도 수반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말씀 곧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당했다. 올바른 말씀 전파가 왕성할 때에 성령께서 원하시면 이른바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초자연적 은사들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경시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요, 교회는 우상숭배나 배교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고 말 것이다.

4. 빈야드운동과 유사 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초자연적 은사를 포함한 모든 은사는 성령의 주권에 속한다.

우리는 지금도 성령의 주권에 따라 모든 은사들이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 주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다양한 형태의 은사를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어 주기도 하신다고 믿는다.(눅 11:13)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언급된 '모든' 열광적 은사들이 지금도 나타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지금도 계속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는 필요에 따라 그런 외국어 방언의 역사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을 일차적으로 구원 역사적인 계시의 진전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와 똑같은 현상은 그 이후 시대에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된다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와 같은 방언은 오늘날에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들 중에는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도리어 파괴하는 사탄의 역사도 있다.¹⁶⁾ 때로는 은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성령의 주권을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역작용 때문에 일부 은사들이 사라졌다고도 말할 수는 없으며,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은사들이 지금도 주어진다고 확언할 수도 없다. 확실한 것은 성령의 선물인 은사들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2) 이른바 초자연적 은사는 교회와 성도의 표지(標識)가 아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간구할 때, 성령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 은사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들의 부재가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단언하지는 말아야 한다. 현대 교회가 무능력하고 침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어떤 특정 은사들의 부재가 아니라 복음적인 설교와 간절한 기도의 부재에서 찾아

야 할 것이다. 말씀의 올바른 전파와 간절한 기도가 부족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의 생활도 기대하기 어렵다. 교회의 관심이 은사 문제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면, 우리는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능력 있게 설교되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3)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은 은사운동은 더 극단적인 은사운동을 강요한다.

역사적으로 많은 은사운동이 실패로 끝난 이유는 더 과시적이고 더 극적인 은사를 행하여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점점 말씀에서 벗어나는 불건전한 운동으로 치우쳤기 때문이다.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고 말씀의 검증을 받지 않은 은사운동의 횡포는 공허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공허감은 더 극적인 은사를 통해서만 해소되는 속성을 지닌다. 나아가 더 큰 신유나 기적의 이야기를 지어서 퍼뜨리는 사교(邪敎) 집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4) 금이빨 변화 등의 현상을 '단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라 말하기 어렵다.

소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들 중에도 사실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마귀의 미혹인 경우도 있다. 마귀도 때때로 큰 능력을 행하여 사람을 놀라게 만들기도 한다. 애굽의 술사들은 자신의 술법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기도 했다.(출 7:11,12) 또 애굽의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도 행했으며(출 7:22),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게 하는 이적도 행했다.(출 8:7)

요한계시록에 거짓 선지자들이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였다고 한다.(계 13:13) 실제로 로마 제국 당시의 이교 제사장들이 이적을 행하여 동상에서 불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이적을 행하기도 하였고, 또한 황제의 동상의 복부에서 말소리가 나게 하는 이적도 행하였다고 한다.(계 13:15 참조) 이처럼 마귀는 비상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하며,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이적이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적인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단지 이적 그 자체만 가지고 성령의 은사라고 단정 짓지 말고, 그것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어떠한 결과를 끼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전에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지에서 이가 빠지고 잇몸이 상해 음식을 못 먹는 이들에게 새 이가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보도의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기적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멀쩡한 이를 금니로 둔갑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 볼 수 없고 오히려 미혹케 하는 마귀의 역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성령은 진리와 질서의 영이시며 특별한 목적과 의미 없이 기적을 남발하여 우리를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하시지 않는다. 성령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도록 정하신 창조 질서를 성령께서 스스로 무너뜨려 우리의 삶을 혼돈케 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금이빨로 변화 현상을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이들은 그런 기적이 전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표적을 통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혼을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거침돌이 될 수 있다.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의 의심과 불신을 단숨에 날려 버림으로써 그들이 믿지 않을 수 없도록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와 사랑의 반응은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죄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그들에게서 진정한 사랑의 순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도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거치는 것이 되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다.(고전 1:18, 22-24)

기적을 통해서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는 그 절정에 이르렀으나 유대인들은 그로 인해 더욱 강박해졌다. 과거 유대인들과 같이 지금도 사람들은 십자가의 메시아가 아니라 기적과 표적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만능의 메시아를 원하고 있다. 이것이 광야에서 사탄이 제시한 유혹이며 십자가 밑에서 군중이 원하던 것이다.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으로써가 아니라 마술과 같은 표적의 도움으로 사람을 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의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그릇된 은사운동은 교회의 질서를 훼손한다.

무분별한 성령운동과 은사운동들이 보여 주듯이, 교회의 질서를 깨거나 특정 은사나 또는 그것에 입각한 은사 교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교훈에 위배된다.(고전 14:40) 이는 성령의 주권을 제한하면서 은사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교회를 단조롭게 만들 뿐 아니라 특정 은사를 얻기 위한 방법론의 횡포를 초래할 수 있다.¹⁷⁾

또한 이른바 초자연적 은사를 가진 자는 그것을 사모하는 대중을 장악하거나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단이 펼치는 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면 교회의 직분도 무시당하고, 공적인 예배도 파괴되고, 무질서가 지배할 것이다.

(6) 성령의 사역에는 은사도 있지만 핍박과 순교도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불러 있게도 하신다.(롬 4:17) 하나님에 못하실 일은 없다. 그런데 왜 굳이 '금이빨'인가? 혹 지극히 가난하여 치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민족들 가운데서는 이런 사건이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기적은 더 이상 실존적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¹⁸⁾

사도 바울은 자기 뒤에서 외치면서 괴롭히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다.(행 16:18) 창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도 살렸다.(행 20:9-12)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악귀들을 쫓아내었다.(행 19:11,12) 그러나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지, 신유나 그런 특별한 은사들을 전하지 않았다.

초대 교회에서 사도 외에 스테반과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 빌립은 사마리아와 여러 곳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 하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었고, 스테반은 순교를 당하였다. 스테반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메시지를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치유와 번영이 아니라 고통스런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당시 예루살렘 중심의 초대 교회를 주님의 의도대로 사방으로 흩으시고 부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때로 우리의 불행과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감수하게 하는 능력이다. 또한 성령님의 능력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 대하기 힘든 이웃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 그들과의 관계를 의지적이고 윤리적으로 세워 가는 일 속에도 강하게 역사한다.

바울은 이적을 몸소 베푼 사람이었으나, 그 호기심 많은 세대에도 기적을 남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갔으며(고후 12:7-9),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의 잦은 발병을 기적으로 고쳐 주지도 않았다.(딤후 5:23) 기적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표적(表蹟), 즉 본질적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는 표지일 뿐이다.(요 2:11, 4:54, 6:2,26, 12:37, 20:30 참고) 모든 이적의 은사가 가리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적의 시행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 미 주 >

- 1) 1990년대 말에 장로교 통합(1997), 합동(1997), 기독교성결교회(1998) 등은 빈야드 운동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 2) 워버는 1977년 미 캘리포니아 Anaheim에서 빈야드교회(Vineyard Christian Fellowship)를 개척하고, 1982년에 남가주지역 교회들에 가입한다. 빈야드교회는 다시 척 스미스의 갈보리채플에 가입하지만 은사에 대한 이견으로 갈라서고, 워버는 빈야드교회에서 다시 사역하면서 1982년에는 와그너와 함께 풀러에서 가르친다.
- 3) 워버, 「능력 전도」(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1), 81 이하.
- 4) C. Peter Wagner, How to Have a Healing Ministry without Making Your Church Sick (1988), 정운교 역, 「제3의 바람」 (인천: 나눔터, 1994), 19. 제1의 물결은 금세기 초의 오순절 운동이요, 제2의 물결은 1960-70년대에 로마교를 포함한 초교파적인 은사 운동이라 하겠다. 오순절 운동은 1900년 미국 캔사스 주 토페카의 베틀 성경 학교(Bethel Bible College)의 교사 파함(C.F. Parham)이 성령 세례의 성경적 증거에 관한 숙제를 부과했는데, 며칠 후 오즈만(A.N. Ozman) 양이 성령을 받아 중국어로 말하였다고 한다. 파함의 제자인 세이무어(W.J. Seymour)가 1906년에 로스 엔젤레스에서 일으킨 아주사(Azusa) 부흥은 오순절 운동을 세계적인 운동으로 변모

시켰다. 7일간의 금식 후 처음으로 7명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 방언은 제2의 축복인 성령 세례의 증거로 고수된다. 제1,2의 물결은 성령 세례에 방언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데 반해, 제2의 영향을 받은 제3의 물결 추종자들은 치유가 필수적이라 한다. 전에는 ‘성령 세례’가 증생 뒤에 받는 제2의 축복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그것을 구원 시에 받는 일회적 사건으로 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선호한다. 그 결과 제1,2의 물결을 거부하던 세대주의자들까지도 이를 추종하게 되었다. 제3의 물결은 방언과 치유는 기본이고, 다른 표적과 기사들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 5) J.A. Beverley, "Toronto's Mixed Blessing," Christianity Today, Vol. 39/10, Sept. 11, 1995, 23; 그들 교회의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라, <http://www.tacf.org/>
- 6) 합동 축 보고서 중에서 인용 “교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신실한 인격을 길러 나아가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워버, 「능력 전도」, 80.
- 7) Kim, Sang-Bok, "The Place of Miracles Today," ACTS Theological Journal, Vol. 5, 1995, 56-109. 치유 외에도 음악 목회, 리더십, 구제(outreach), 전도 등의 방법론도 개발한다.
- 8) 한국지부도 은사의 전수를 강조한다, www.wli.or.kr.
- 9) 전정희, "밀려드는 '신사도적 개혁운동' 파도" 「교회와 신앙」(www.amennews.com), 2006,6,5.
- 10) F.D.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Eerdmans, 1976), 105.
- 11) W.D. Jonker, Die Gees van Christus (Pretoria: N.G. Kerkboekhandel, 1981), 237.
- 12) 우리는 사도행전을 일차적으로 구원 역사적인 계시의 진전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성령의 자유를 제한하는 식으로 이 입장을 해석하면 안 된다.
- 13) 와그너, 「능력 전도」, 187 이하.
- 14) 와그너, 「제3의 바람」, 240; 워버, 「영적 성숙을 위한 7가지 제언」 (인천: 나눔터, 1994), 68.
- 15) 칼빈, 「요한복음 주석」, 4:48 주석.
- 16) 특히 고린도전서에서는 은사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즉, 은사들은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말, 고전 12:8, 14:9,19, 15:2; 지식, 고전 12:8), 부정적으로 사용 될 수도 있다(말, 고전 1:17, 2:1,4,13, 4:20; 지식, 8:10-11, 13:2,8, 14:6). 때로는 말이 방언과 동의어가 되어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다(14:6). 이것들이 교회의 덕(14:3,5,17)과 사랑(8:1; 롬 14:15; 고전 13:12-13)을 세우지 못할 때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지식이 약 한 자를 세우지 못하고 파괴할 수 있다(8:10, 10:23).
- 17) 가령 ‘방언 훈련’ 과 같이 성령의 은사들을 얻기 위한 훈련은 성령을 조종하려는 방법론으로서 성령의 자유로우신 사역에 순종하기보다는 지배하려는 그릇된 태도이다. 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예수님 밖에 있는 ‘자연인’ 도 과시적인 은사를 흠모하는데, 이를 통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려 하기 일쑤이다(미술사 시몬의 경우, 행 8:13,18-24). 정말로 성령 안에 있는 새사람은 이런 은사에 의존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공명심과 이기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은 은사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무엇인가를 판단 할 수 있는 좋은 근거라 하겠다.
- 18) 이미 1593년에 현재의 폴란드의 한 마을(Weigelsdorf)에서 7급살 난 아이의 젖니가 금으로 씌워졌다는 기록이 있다, Robert Jütte, "Ein Wunder wie der goldene Zahn". Eine "unerhörte" Begebenheit aus dem Jahre 1593 macht Geschichte(n) (Stuttgart: Thorbecke 2004). 이것은 1746년에 Claude Mouton이 처음으로 근대 의학으로 금니 시공을 하기 훨씬 이전의 이야기여서 한 동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켰다. 특히 그 당시 유럽의 안전을 위협하던 투르크에 대한 승 리와 새로운 황금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라는 해석이 두루 퍼졌다. 실망스럽게도 1596년에 그 금니의 색깔과 모양은 변질되었고, 조잡한 인공 치아임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결국은 근대 과학의 관점에서 기적의 허위성을 입증 하는 재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처럼 기적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에 대한 신뢰성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은사주의에 대한 질의응답

질문 / ‘은사주의’가 무엇이며 건전한 것인가요?

대답 / 모든 신앙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아마 그 말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다는 교인들은 그다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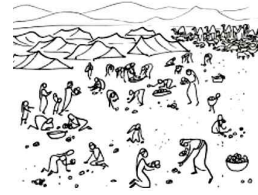
그러나 저마다 성경을 들고 나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성경적이라 하게 되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은사주의’와 ‘신비주의’ 같은 경향은 개인적 혹은 개별 집단적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예언과 방언, 치유, 사람을 쓰러뜨리는 행위, 입신 등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경험을 했거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것을 성령체험이라 생각하며 혹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방언, 치유 등을 믿고 있지만, 우리 시대의 불건전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자들의 현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인간의 경험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즉 자기가 어떤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되면 더 강하게 믿고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희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은 인간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계시되어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해하고자 할 때 기록된 성경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종종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을 왜 부인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신약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이 종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들과 사도들이 보여준 기적들, 그리고 사도교회 시대에 특별한 은사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가운데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약 성경의 한 예를 들면,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은 시내광야 40년에 국한됩니다. 동일한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다윗왕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궤 안에 보관된 그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먹이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의미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시대의 성령의 은사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은사를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의미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은사들이 없어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직접 먹지 않았지만 그들과 동일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시대에 불건전한 은사운동과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을 계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듯 자기의 신앙체험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의 교회가 속히 계시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현대는 하나님의 말씀 보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따라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로지 성경 말씀을 좇아 진리를 따르는 지혜를 보존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 이광호 목사(실로암교회)